2022 한국질적탐구학회/한국초등교육학회/한국외식경영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한류(Hallyu):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문화 연구, 그 지평의 탐색

2022

- 일시: 2022년 11월 25일 (금) ~ 11월 26일 (토)
  - 11/25 (금) 16:00 ~ 18:00 Pre-conference
  - 11/26 (토) 09:30 ~ 18:00 추계학술대회
- 방식: 대면 학술대회
  - Pre-conference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워크숍(ZOOM)으로 진행됨
- 장소: 전주교육대학교 일원
- 주최: 한국질적탐구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 한국외식경영학회
- 후원: 전주교육대학교, 아카데미프레스

한국질적탐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Inquiry

한국초등교육학회

(사)한국외식경영학회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한류(Hallyu):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문화 연구, 그 지평의 탐색

한국질적탐구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 한국외식경영학회 공동 주최
2022 추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불고 있는 한류(Hallyu)를 새로운 질적연구 탐구 주제로 상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K-pop에서 방탄소년단, K-movie의 봉준호, K-drama로서 황동혁의 오징어게임! 최근 전 세계에는 그야말로 Hallyu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풍 속에서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패션, 교육, 의료, 관광, 외식, 레저와 스포츠와 같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는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학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학자들도 한류를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고 매우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1972년 아놀드 토인비가 한 인터뷰에서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이며, 그 핵심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처럼 한국은 다양한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키워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의 탐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세 학회는 "한류(Hallyu):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문화 연구, 그 지평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11월 26일(토) 오전에는 Penn State University의 Samuel Richards 교수의 "한류와 한국문화", "한국 음식의 세계화(안)" 주제로 양창용 PD, 그리고 "한류와 한국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윤미 홍익대학교 교수의 주제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각 학회의 탐구 주제를 고려한 세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학술대회 전날 11월 25일 금요일에는 세 개의 질적탐구 방법론 워크숍이 비대면으로 제공되며, 학술대회 당일 오후 세션 이후에는 질적연구에 입문하는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의 방법론 공부에 대한 갈증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적 그리고 최신의 질적연구방법론 워크숍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한국질적탐구학회 회장 이동성 **한국초등교육학회 회장 박승배** **한국외식경영학회 회장 문성식**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위원장 정정훈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위원장 정광순** **한국외식경영학회 학술위원장 임현철**

2022 한국질적탐구학회/한국초등교육학회/한국외식경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

1.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6 : 00 ~ 18 : 00 Pre-conference Workshop
   - 2022년 11월 26일(토) 09 : 30 ~ 18 : 00 추계 학술대회
2. 장 소: 전주교육대학교 일원
   - Pre-conference Workshop은 비대면 온라인 워크숍(ZOOM)으로 진행됨
3. 주 제: 한류(Hallyu) -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식문화와 교육 그리고 한국문화 연구, 그 지평의 탐색(안)

Pre-conference Workshop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16:00 ~ 18:00

	세션 1	세션 2	세션 3
16:00 ~ 18:00 Zoom을 통한 온라인 워크숍	**질적 연구와 CQR 방법론의 기초** 김동민 (전주대학교)	**인물사례연구**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내러티브 논문 구성항목별 글쓰기** 홍영숙 (중원대학교)

2022 한국질적탐구학회/한국초등교육학회/한국외식경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시: 2022년 11월 26일(토) 09:30 ~ 18:00

09:30 ~ 09:40	**개회사**(박승배, 문성식, 이동성) **및 축사**(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사회〉 임진선(우석대학교) 김건휘(장안대학교) 〈통역〉 정정훈(부산대학교)
09:40 ~ 10:20	**Thinking About Hallyu's Growth and Popularity Around the World** - Samuel Richards (Penn State University)		
10:20 ~ 10:50	**리얼리티 한식의 모험** - 양창용 PD		
10:50 ~ 11:20	**한국교육체제의 특성과 과제** - 이윤미 (홍익대학교)		
11:20 ~ 12:30	중식 및 세션 이동		
12:30 ~ 14:00	**한국질적탐구학회 세션** **(질적 연구로 탐색하는 한류)**	**한국초등교육학회 세션** **(K-edu: 한국의 학교, 학생, 학부모)**	**한국외식경영학회 세션** **(K-food로 확산하는 한류)**
	Michael Hurt (한국예술종합학교) 송정은 (미래산업전략연구소) 유옥란 (단국대학교)	정정훈(부산대학교) 조재성(진주교육대학교) 방기홍, 김영천(진주교육대학교) 장민경(서울연가초등학교)	장나영, 손혜진 (경희사이버대학교, LD개발연구소) 장나영 (경희사이버대학교)
14:00 ~ 14:10	휴식 및 이동		
14:10 ~ 16:00	**워크숍 1**	**워크숍 2**	**워크숍 3**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오영범 (경남교육정책연구소)	**참여 연구의 이론과 실제** 류영휘 (서울대학교)	**상징적 상호작용과 생애사** 박성희 (공주대학교)
16:00 ~ 16:10	휴식 및 이동		
16:10 ~ 18:00	**워크숍 4**	**워크숍 5**	**워크숍 6**
	최신 질적자료분석의 실제 이현철 (고신대학교)	**질적연구방법으로서 푸코방법론의 이해** 궁선혜 (이화여자대학교)	**자문화술지** 진명일, 이현진 (대전대학교, 계명대학교)

2022 추계학술대회 학회별 오후 세션 프로그램 안내

○ 일 시: 2022년 11월 26일(토) 12 : 30 ~ 14 : 00

○ 장 소: 전주교육대학교 일원

- 세션별 세부 장소는 참가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추후 안내

세션	주제	세부 발표 주제
한국질적탐구학회 세션 (좌장: 정상원)	질적 연구로 탐색하는 한류	Michael Hurt (한국예술종합학교) **- PHOTO-SARTORIAL ELICITATION** 송정은 (미래산업전략연구소) **- 한류 팬의 일상문화와 한국문화콘텐츠의 확산** 유옥란 (단국대학교) **- 어느 재일(在日) 한류 산업 관련 종사자의 직업 경로**
한국초등교육학회 세션 (좌장: 정광순)	K-edu: 한국의 학교, 학생, 학부모	정정훈 (부산대학교) **- 핀란드 교사를 넘어서: 새로운 국제 모델로서 한국의 교사들** 조재성 (진주교육대학교) **- 새로운 학습자본으로서 한국의 엄마들의 교육적 전략들** 방기홍, 김영천 (진주교육대학교) **- 서구의 학생들이 배운다: 한국 학생들의 창의적인 공부법** 장민경 (서울연가초등학교)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학교 수업 사례**
한국외식경영학회 세션 (좌장: 최동주)	K-food로 확산하는 한류	장나영 (경희사이버대학교), 손혜진 (LD개발연구소) **- BTS를 통한 K-Food의 인식변화 연구:현상학연구를 통하여** 장나영 (경희사이버대학교) **- 한식브랜드 중국진출 사업팀의 고군분투기: 생애사연구를 통하여**

2022 추계학술대회 워크숍 프로그램 안내

〈Pre-conference 워크숍〉

세션 1

질적 연구와 CQR 방법론의 기초

김동민(전주대학교)

現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질적탐구』 편집위원, 『발달지원연구』 편집위원,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부회장, 『국제예술심리치료협회』 음악치료분과 회장 Ph.D. Expressive Therapies, Lesley Univ., Cambridge, MA. Ph.D. 심리학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M.A. Music Theapy, New York Univ., NYC, NY. M.M. Voice, Peabody Conservatory of Music, Johns Hopkins Univ., Baltimore, MD. B.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김동민(전주대학교 교수)은 즉흥연주 중심의 Nordoff-Robbins 음악치료 전문가(NRMT)로서, 『미국 공인 음악치료사(MT-BC)』 및 『뉴욕 주정부 공인 예술치료사(LCAT)』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발달, 전문적 자기효능감, 예술치료 수퍼비전 등을 주제로 수십 편의 양적, 질적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학회에서의 연구발표 및 특강 등을 통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왔다. 두 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합의적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였고, 석, 박사생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론을 강의하며 합의적질적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학위논문을 지도하고 있다.

[워크숍의 구성]

1. 사회과학 연구의 주요 패러다임
2. 후기실증주의와 구성주의
3.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4. CQR의 정의와 목적
5. 철학적 배경
6. 핵심 요소
7. 방법론적 절차에 대한 조언
8. 간단한 실습

세션 2

인물사례연구: 초상화법

이현주(이화여자대학교)

이현주 교수(이화여자대학교)는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과학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대학 Klaus Witz 교수로부터 '초상화법(Portraiture)'과 심층면담에 대해 배웠으며, 박사학위논문으로 과학수업에 과학관련 사회쟁점들을 도입하는 4명 과학교사의 교육철학과 동기, 교수 방법 등을 담은 초상화를 작성하였다. 현재 과학교육학과 대학원에서 질적연구방법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영역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쟁점 교육이며, 수십 편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을 게재해왔다. 《질적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2017, 아카데미프레스)의 공저자이다.

Lawrence-Lightfoot과 Davis(1997)가 처음 소개한 초상화법은 여러 가지 인물 사례연구 방법 중 인간의 내면세계, 즉 개인의 교육철학, 가치관, 신념, 믿음 등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둡니다. 잘 그린 초상화를 볼 때 자연스럽게 그 인물의 내면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글로 서술된 초상화는 연구 대상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 안에 만연히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끄집어내어 묘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이해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을 둔 연구자의 통찰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상화는 관찰이나 심층면담, 문헌 분석 등을 통해 알아낸 개인에 대한 통찰을 하나의 미술적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초상화법의 배경과 특성, 연구 방법 및 글쓰기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의 구성]

I. **초상화법의 개념과 특징**
   1. 초상화법이란?
   2. 좋은 초상화란?
   3. 초상화법의 원리

II. **초상화의 작성**
   1. 초상화 작성 단계
   2. 심층면담과 시간흐름표 작성
   3. 초상화의 뼈대잡기
   4. 사례간 비교

III. **질의응답**

세션 3

내러티브 논문, 구성 항목별 글쓰기

홍영숙(중원대학교)

홍영숙 교수는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TESOL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캐나다 University of Alberta에서 교사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내러티브 탐구의 기초를 만든 Clandinin 교수의 지도학생으로 '내러티브 탐구'에 대하여 전공, 수학하였다. 저서로는 〈내러티브 탐구와 박물관 교육(박물관 교육과 질적연구, 2015)〉, 〈내러티브 교육과정 메이커로서의 교사의 삶(교사의 재발견, 2016)〉이 있으며, 교사정체성 및 내러티브 교육과정, 교육사회학 등에 관한 다수의 내러티브 질적 논문과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 논문작성의 실제〉라는 방법론 관련 학술지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홍교수는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및 실제』 관련한 전국 규모의 워크숍/특강을 70회 이상 수행한 바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내러티브 탐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좋은 내러티브 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본질적, 이론적 이해를 근간으로 한 내러티브 논문의 각 구성 항목 작성과 그에 따른 글쓰기 오류, 각 항목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워크숍에서 다루어질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숍의 구성]

내러티브 논문의 구성 항목 작성 가이드

1. 【연구 주제/논문 제목】 정하기
2. 【연구자의 내러티브(Narrative Beginnings)】 작성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작성
4. 【연구 퍼즐】 구성
5.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작성
6. 【내러티브 풀어내기(Narrative Accounts)】 작성
7. 【경험의 의미】 구성

〈추계학술대회 워크숍〉

워크숍 1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오영범(경남교육정책연구소)

오영범(경남교육정책연구소)은 부산대학교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현장 교육 지원 및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교사 전문성과 수업: 질적 연구를 통한 실천적 접근》(2017, 교육과학사), 《기록하는 교사》(2018, 교육과학사)의 저자이며, 현재까지 35편의 KCI 등재지 논문을 발표하였다. 수업, 수업분석, 교사연구, 포토보이스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포토보이스는 참여적 행동 연구의 한 종류입니다. 연구 참여자가 직접 찍은 사진에 목소리를 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포토보이스의 핵심입니다. 본 워크숍은 포토보이스의 탄생 배경, 연구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 사례 등을 안내하기 때문에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크숍의 구성]

I. **포토보이스의 개념**
II. **포토보이스의 목표 및 특징**
III. **포토보이스의 이론적 근거**
    1. 프레이리의 비판적 의식화 교육론
    2. 페미니즘
    3. 참여적 다큐멘터리 사진
IV. **포토보이스의 연구 절차**
    1. Wang의 9단계
    2. Latz의 8단계
V. **포토보이스의 적용 사례**

워크숍 2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참여 연구의 이론과 실제

류영휘(서울대학교)

류영휘(서울대학교)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티처스컬리지에서 교육과정과 교수(Curriculum & Teaching)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정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을 강의하는 한편,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주 배경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Critical inquiry with children as an unlearning process: A South Korean case of critical inquiry centering learning from children, Demystifying participatory analysis with children 등 질적연구방법론에 관심을 둔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주민 아이들과 교육과정,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비판적 방법론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본 워크숍은 연구에 붙박혀있는 권력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진 연구자들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어린이, 이주민, 장애인, 성적 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사회적 집단은 연구에서도 소외되기 쉽고, 이들을 연구하는 과정은 이들을 다시 한 번 소외시키는 과정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이 워크숍은 아이들과의 참여 연구를 중심으로, 참여 연구라는 하나의 대안적 방법을 탐색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워크숍은 연구에 붙박혀 있는 권력의 문제, 대안적 접근으로서 참여적 연구의 인식론적 배경과 핵심적 아이디어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아이들과의 참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참여 연구 설계를 실습해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 워크숍을 통해 국내에는 다소 생소한 참여 연구라는 연구 접근을 익힐 뿐만 아니라, 본 워크숍이 질적 연구에 붙박혀 있는 권력관계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워크숍의 구성 (변동 가능)]

I. **참여 연구의 이론적 논의**
   1. 참여 연구의 문제 의식
   2. 참여 연구의 핵심적 아이디어

II. **참여 연구의 사례**
   1. 9/11테러에 대한 뉴욕 아이들의 시각적 목소리
   2. 도심 지역 문제 아이들에 대한 사진 연구
   3. 이주민 소속감에 대한 이주민 아이들의 재개념화

III. **참여 연구 실습**
   1. 데이터 생성 방법 설계하기
   2. 참여 연구에서 윤리적, 방법론적 쟁점 고려하기
   3. 참여 연구 관점에서 나의 연구 주제 탐색해보기

워크숍 3

상징적 상호작용과 생애사

박성희(공주대학교)

박성희(공주대학교)는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2004, 원미사), 《질적인 생애사 연구방법론》(2016, 박영스토리)의 저자이며, 생애사 연구방법론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학교밖 청소년, 노인, 성인 등 소외계층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워크숍은 질적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논문이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초심자 및 연구자를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질적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현상학에 대한 소개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관한 소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살고 있는 개인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취득해나가며 새로운 의식을 발전시키며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발전시켜갑니다. 개인이 자신의 고유성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은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잘 설명됩니다. 이에 본 워크숍에서는 각 개인의 고유한 주관적 의식세계를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통해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개념을 설명하는데 핵심이 두었습니다. 본 워크숍을 통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기초로 질적연구 및 생애사 연구의 분석과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적 능력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워크숍의 구성]

I.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문제**

II.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이론적 배경**

1.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과 발달
2.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본원칙과 행위이론,
3.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성과 내러티브
4.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반한 경험의 재구성

III.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생애사 연구**

1. 자료 수집방법: 생애사적 내러티브 면담
2. 자료해석: 근거이론
3. 글쓰기

IV. **마치며: 생애사 연구와 연구 동향**

워크숍 4

최신 질적자료분석의 실제

이현철(고신대학교)

이현철(고신대학교)은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박사,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박사후연구, 고신대학교 목회학석사(신학), 미국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박사(신학) 과정들에서 공부하였으며, 현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와 교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질적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2017, 아카데미프레스), 《질적자료분석》(2016, 아카데미프레스), 《통합연구방법론》(2013, 아카데미프레스)의 공저자이며, '한국교회의 진입장벽, 산간벽지 교회, 소형교회 은퇴목회자, 한인 디아스포라'등 질적연구를 활용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학술논문 총피인용 수 최상위 연구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본 워크숍은 질적자료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을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연구현장에서 수집된 질적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는가'하는 것은 연구 자체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구의 성공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신 질적자료분석 전략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질적 자료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참석자들의 자료분석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유의미한 학습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나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작성 중에 있는 전문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는 자료분석으로 인한 '답답함과 두려움'를 해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질적자료분석을 수행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질적자료분석 컴퓨터 소프트웨어(CAQDAS)들도 간략하게 소개하여 연구자들의 관련 지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워크숍의 구성]

I. **'논문심사자'로서 던지는 몇 가지 질문들**
   "당신의 주요 '분석결과와 theme'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당신은 현장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는가?"
   "당신의 연구는 어떻게 타당성을 확보하였는가?"

II. **질적자료분석의 개념과 특성**
   1. 자료분석의 개념
   2. 자료분석의 특성

III. **질적자료분석의 일반적 단계와 과정**
   1. 대표적인 학자들의 자료분석 단계
   2. 일반적인 자료분석의 단계

IV. **질적자료분석의 실제**
   1. 최신 코딩 전략
   2. CAQDAS 소개

V. **자료 해석을 위한 팁**

워크숍 5

질적연구방법으로서의 푸코방법론 이해

궁선혜(이화여자대학교)

궁선혜(이화여자대학교)는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에서 Curriculum&Instruction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질적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2017, 아카데미프레스)의 공저자이며, 질적연구에 푸코의 관점을 방법론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논문으로는 《The shifting space of ontology: appeals to crisis and the reformulation of nation, race, and biology in educational reform(2018)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교육과정이론, 학교교육과정, 교사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이다.

본 워크숍은 질적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연구방법을 소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적연구와 탐구에 대한 접근 방식은 포스트모던적 패러다임과 함께 재구성되고 변형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푸코는 포스트모던적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연구자로 그의 연구는 교육현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에 본 워크숍에서는 푸코의 권력에 대한 관점과 담론에 대한 이해 방식을 소개하고, 푸코의 문제의식과 담론분석법을 연구문제 설정부터 자료수집과 분석에 이르는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다양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푸코방법론의 기본 아이디어와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질적연구 및 탐구 대상으로서 교육현장을 조망하고 분석하는 인식의 범주를 확장/재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워크숍의 구성] (변경 가능)

I. **푸코의 아이디어 이해**
   1. 권력이론
   2. 지식의 고고학
   3. 권력의 계보학
   4. 윤리의 계보학

II. **질적연구와 푸코방법론**
   1. 담론분석법의 이해
   2. 담론분석법의 절차
   3. 담론분석법 관련 연구

워크숍 6

자문화기술지 - 나와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방법론

진명일(대전대학교)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학부,석사,박사 졸업
[경력] 현) 대전대 학생상담센터 수퍼바이저
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전문심리상담위원회 이사
현) 창원소방본부 상담실 자문위원
[자격] 한국상담심리학회 -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한국상담학회 - 전문상담사 1급 (일반수련감독자)
한국상담진흥협회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1급
[연구 및 관심]
-자문화기술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자문화기술지와 질적연구를 지속적으로 지도, 연구
-자아초월 상담, 사회정의 상담, 인간중심 상담, 마음챙김, 집단상담, 상담 수퍼비전에 관심

이현진(계명대학교)

이현진(계명대학교)은 인제대학교에서 상담심리치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과 상담,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정서기반 자문화기술지의 방법론적 탐색: 상담학 분야를 중심으로》, 《상담학 이론에 기반한 자문화기술지의 개념적 특질 탐색》 등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론과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으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상담자 교육 및 연구, 대학생 상담, 정서연구, 실행연구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워크숍은 질적연구, 특히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을 선택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자문화기술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연구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실행 방안을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문화기술지는 여러 학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 특히 상담심리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계에서 그 적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문화기술지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좋은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질을 높이는 자문화기술지는 어떠한 준비와 탐구를 하는 것이 연구의 완성에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워크숍의 구성]

I. **질적연구**
   1. 질적연구의 목적
   2. 질적연구의 종류와 특징

II. **자문화기술지**
   1. 자문화기술지의 목적
   2. 자문화기술지의 종류와 특징

III. **자문화기술자**
   1. 자문화기술자의 자세
   2. 자문화기술자의 글쓰기
   3. 자문화기술자의 정서, 욕구, 목표, 가치관 성찰